

디지털시대의 지식계급, 디제라티^{digerati}



디지털혁명으로 지식인과 엘리트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다. 디지털시대의 지식인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새로운 정보들을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해 가치를 창출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신계층을 디제라티(digerati)라고 부른다.

‘디제라티(digerati)’라는 말은 디지털(digital)과 리터라티(Literati; 지식인)를 합성해 만든 신조어이다. 디제라티는 ‘디지털 시대의 지식인’을 뜻하는데, 디지털 변혁에 선봉을 서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디지털 시대의 지식인은 과거의 지식인과는 달리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물론, 스스로 디지털 세상에 권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파워엘리트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들의 특징은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의 경계를 아우른다는 점이다. 어디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융합하는 컨버전스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기존에 나뉘어 있던 학문의 분야를 디지털, 컴퓨터를 통해서 한데 묶는다. 일부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제3의 문화’를 펼쳐갈 잡종들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새로움을 창조한다

이들은 말보다는 행동이 앞선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디지털시대에 앞서나간다는 것은 기존에 없던 무언가를 창조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제라티는 창조자이며, 자기 스스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능력이 바로 자신의 소신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디제라티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자신만의 독특한 시

선으로 세상을 재창조한다. 그들은 권위에 기대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기존 지식인들보다 더욱 폭넓은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네트워크에서 지연, 학연, 혈연, 연줄은 중요하지 않다. 모두 수평적인 입장에서 서로에 대한 관심사와 기여도만을 중요시 여긴다. 디제라티는 수준과 관심이 비슷한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자신의 힘을 확장시키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디제라티라고 불리는 사람에는 누가 있을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야후를 만들었던 제리 양 등을 꼽을 수 있다. 모두 정보사회를 누구보다 빨리 발견하고,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그곳으로 달려 나간 사람들이다. 또한 이들은 경제적으로 성공했는데, 이 또한 디제라티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처럼 새롭게 등장한 디제라티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서 자신도 사회적, 경제적인 명성을 얻기도 한다. 물론, 이런 점이 디제라티가 가진 한계라고도 말하지만, 디제라티는 단순히 정보를 독점하는 것을 넘어, 이것을 활용해서 좀 더 다채로운 세상을 만들고, 또 이것으로부터 이익을 얻기도 바란다. 좀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지식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김정상 기자 sang@print.or.kr